

선교, 교육 약정 / 사순절 첫번째 주일 예배
THE WORSHIP SERVICE OF 1ST SUNDAY IN LENT

주후 2023년 2월 26일 오전 10시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310장 “아 하나님의 은혜로” (통일410)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9 번 시편 15 편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643 장 “세번 아멘” (통일555)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		김강석 장로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출애굽기(Exodus) 20:1-17	조문희 집사
찬 양 Anthem	“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”	찬양대
설 교 Sermon	“네 부모를 공경하라” (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)	김일선 목사
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	“아버지 사랑합니다”	다같이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봉 헌 Offerings		다같이
*송 영 Doxology	317 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통일353) 1 절	다같이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*파송 찬양 Sendig Hymn	405장 “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” (통일458)	다같이
*축 도 Benediction		김일선 목사

*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성경은 우리에게 “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”고 말씀하고 있지만, 우리는 교만했고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. 그래서,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, 반복적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,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. 그러므로,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? 그리고, 혹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? 를 다시금 되돌아 보며,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, **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.”** 우리의 교만하고 단단해진 마음을 깨뜨려주시고, 죄의 유혹 앞에서 힘이 무너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. 그리하여,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,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,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. **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** (*신 10:16)

지난 주일(2/19) 말씀 –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(27)

“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” (출애굽기 20:1-17)

현대인들은 누구나 “쉼”을 원합니다. 그런데, 단순히 쉬는 “휴식”으로서의 쉼이 있는가 하면, 평안을 누리며 쉬는 “안식”으로서의 쉼이 있습니다.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도 바로 “안식으로서의 쉼”에 관한 계명으로서,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, “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”(출20:8)고 명하셨습니다. 그렇다면, (우리는) 어떻게 “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”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? 1)첫째,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여,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야 합니다. 이는 “장소의 구별”이 구약에서의 “성전”이라면, “시간의 구별”은 곧 “안식일”이기 때문이기에, 거룩한 구별됨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2)둘째,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. 그래서, 예수님께서도 “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,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”(막22:7)라고 말씀하시며,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안식일 정신의 핵심임을 강조하셨습니다. 3)셋째,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,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가야 합니다. 구약에서도 안식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을 강조했듯이(레23:7-8),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,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, “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”는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,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, 구별되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친밀하게 더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오/늘/의/ 성/경/말/씀 TODAY'S SCRIPTURE

“네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.” (개역개정, **출 20:12**)

“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,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.” (NIV, **Exodus 20:12**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2/26 (주일)	2/27 (월)	2/28 (화)	3/1 (수)	3/2 (목)	3/3 (금)	3/4 (토)
	출9	출10	출11	출12	출13	출14	출15
본문	눅12	눅13	눅14	눅15	눅16	눅17	눅18
	욥27	욥28	욥29	욥30	욥31	욥32	욥33
	고전13	고전14	고전15	고전16	고후1	고후2	고후3

수/요/ 찬/양/집/회 토/요/ 새/벽/기/도/회

수요 찬양집회 (3/1오후7:30)	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(3) – “출애굽” (출20)
토요 새벽기도회 (3/4오전6:30)	“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?” (시113:1-9)

설/교/ 메/모